

You never saw it

박고은 (어시스턴트 큐레이터, 갤러리키체)

전시는 작가 네 명의 작업 안에서 각기 어떤 장면들을 발견하며 촉발되었다. 본래의 형상을 가늠하기 쉽지 않은, 제각기 조형된 사물들과 그 사물들이 이루는 장면들. '장면(scene)' 에 대해, 전시는 아래의 입장을 견지한다

'장면'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 광경, 상황'으로, 이는 '풍경'과는 구분되는 언어이다. 풍경이 사물이나 자연의 본래 모습을 을 지칭하는 가치 중립적 언어라면, 장면은 특정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광경, 혹은 보는 이가 의식, 무의식적으로 특히 주목한 광경을 가리킨다.

작가는 무엇을 봤을까. 눈 앞의 사물과 광경에 대해 어떤 태도를 지니고 있었을까. 자기 안의 무엇을 동원해 보았을까.

보는 일은 인식을 동반하고, 인식은 사유를 불러 일으킨다.¹ 흥미로운 문제는, 인간의 '보기'가 종종 대상의 전체를 아우르는 일에 실패한다는 데서 발생한다.² 일부를 확대해 바라본 다음 그것이 그의 본질인 듯 곡해하거나 자신의 기억, 편견, 바람, 감정과 버무려 대상의 성격을 재구성 해 받아들이는 것 모두 대상의 본래 상태(being)와 거리를 두는 일이다. 이 전시는 선명한 시각적 결과물로 도출(노출)되는 작가들의 편파적, 주관적 '보기'를 살피는 데 주안점을 둔다. 네 명의 작가가 각기 주목한 특정한 대상과 광경을 마주하고, 그것을 보게 된 연유, 그것을 보는 각자의 태도를 관찰하며, 본 것을 자신의 작업 안으로 불러 들이는 조형적 방식을 살펴본다. 이는 그가 천착하는 세계의 부분을 들여다 보는 일이 될 것이며, 그가 주로 행하는 곡해의 형태를 엿보는 일이 되고, 그가 인지하는 세계의 모양, 그 윤곽을 더듬는 일이 될 것이다.

박신영이 그리는 장면은 자신이 살아 온 '도시'라는 공간에서 파생한다. 여러 갈래로 뻗은 길, 길 위에 늘어선 자동차와 건물, 나무. 도시에서 흔히 보이는 대상들 위에 덧씌워지는 것은, 도시라는 세계를 향한 작가의 정서와 감정이다. 불안, 중압감, 호기심, 두려움 등으로 표현할 수 있을 이 정서는 경주같은 도시의 일상 속에서 '생존' 하듯 살아 온 작가의 내면에 겹겹이 누적되어왔을 것들로, 작가의 화면 위에서 특유의 색과 음영으로 발산되며, 형상의 구체적인 모양새를 흐트러뜨리며 그려나가는 붓질 방식으로 회화화 된다. 애써 그려넣은 형상들은

¹ 임 산, 존 러스킨의 미학에서 '본다는 것'의 의미,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Vol. 7, No. 2, 2021), 303-308

² 임철규, 눈의 역사 눈의 미학, (한길사, 2004), 58

“.. 인식한다는 것은 전체 중의 부분만을 파악한다는 것이기에 눈이란 진정 감옥이다. ... 인식은 감옥의 역사이며, 인간사유의 역사는 '틀짓기'의 역사이고, 이는 전체를 부분으로 난도질하는 '비틀기'의 역사이다. ... 전체에서 부분을 떼어내어 이를 전체로 틀짓고 절대화하는 인식의 파편화 그리고 파편화를 가져오는 눈의 '작란'(作亂)이 없었다면, 종교분쟁이나 전쟁과 같은 파국의 역사는 없었을 것이다. 눈은 그만큼 위험하기 짝이 없는 감각이다.”

벗이 달을수록 형체와 윤곽을 잃다, 마침내는 배경과의 경계를 소실한다. 작가는 '그리면서 숨긴' 다. 무엇을 그렸는지 쉽게 식별할 수 없도록. 그려진 것들이, 누구의 눈에 띄거나 세계 앞에 드러나지 않고 자기의 자리에서 자기 평안을 지키며 존재할 수 있도록. 생기를 잃은 기이한 형태의 동식물, 숲 가운데 불시착한 듯 유예하는 비행체, 마른 뼈 조각 등 작가가 그간 보아 온 픽션과 종이 매체에서 차출된 비일상적 도상들은 작가의 화면에 내려앉아, 지워지듯 이지러지며 화면 바닥으로 숨어든다.

이동혁은 폐교회를 찾아 나섰다 맞닥뜨린 광경에 천착해 그린 회화 연작을 출품한다. 지난 몇 년 간 작가는 각지의 방치된 폐교회 공간을 방문해 그 곳에서 감각한 것들을 자원 삼아 자기 회화의 고유한 주제 의식을 다듬어 왔다. 전시를 앞두고 또 다른 폐교회를 찾아 화성 형도³를 방문했으나, 작가가 마주한 것은 오래 전 사라진 교회의 터였다. 간척 사업으로 섬을 둘러싼 바다가 생명력을 잃으면서 마을이 쇠퇴했고, 학교, 병원, 시장이 사라졌으며 교회 또한 사라졌을 것이다. 보고자 했던 공간을 마주하지 못했음에도 작가의 '보기'가 향한 방향은 크게 변하지 않았다. 목적인 공간을 마주했을 적에도, 실패한 이번에도 작가가 일관되게 본 것, 촉각한 것, 자기 회화를 지탱하는 주제로 삼은 것은 불 같은 신념과 의지가 통용되리라 여겨지는 신앙의 공간에 한 때 들어차있었을 사람의 마음이나 정신, 언제고 부서질지 모를 집념이나 영원같은 것들로, 으레 형태 없다 여겨지는 것들이 만약 풍경을 이룬다면 작가의 회화가 일레가 될 수 있겠다. 간척 사업의 일환으로 흉하게 깎아버린 산등성이, 억지로 메워진 바다와 육지가 이루는 어설픈 지평선이 화면의 밑바닥에 자리를 잡고 그 위로 돌탑 같기도 한, 쇠퇴한 마을 곳곳에 을씨년스럽게 나뒹굴던 바위 같기도 한 것들이 버려진 영원처럼 쌓여 이번 연작들의 장면을 이룬다. 종종 물감을 켜켜이 쌓아 수직적 질감의 표면을 만들던 작가는 이번에 방향을 다소 틀어, 질감을 깎아 표면에 다져 바르듯 옆으로 레이어를 쌓는다. 달라진 작가의 표면이 조용하는 것은 무너지고 메워져 끝내 평평히 침식된 정도의 시간일지 모른다.

박노완은 '망한 것', '아무것도 아닌 것'을 그린다. 철 지난 광고, 언젠가 들이받혀 찌그러진 채 방치된 도로 위 안전바, 바람 빠진 풍선 입간판. 낡고 닳아 더는 중요하다 여겨지지도 선호되지도 않는 것들은 그러나 이상한 생기를 지닌다. 이들은 주류의 기준을 준수하지 않으며, 오히려 역행하거나 피해가는 듯 보인다. 이들이 세계 안에 태연히 자기 자리를 차지하고 앉은 이 장면들은 작가의 화면에 오르며 독특한 회화적 니앙스를 입는데, 이는 그리는 대상이나 서사가 그림의 주제가 되길 회피하는 작가의 태도에서 기인한다. 화면 속 배경과 오브제가 이렇다 할 우선순위 없이 균등한 에너지로, 균등한 방식으로 그려져 결국엔 뚜렷한 경계 없이 마감되는 이유이다. 작가가 몰두하는 일은 대상의 재현보단 자기 회화의 언어를 구축하는 일, 회화의 과거와 현재, 내일 속에서 내 회화가 비집고 들어갈 유효한 틈을 성취하는 일이다. 작가는 이를 위해 점, 선, 면을 슬쩍 기만하는 그리기를 시도해 왔다. 당연한 것들을 비껴나간 화면엔 무엇이 남을 것인가. 수채 물감에 고무액을 섞어 캔버스에 도포하는 작가의 그리기는 선을 긋고 면을 나누기보단 '얼룩'을 낳고, 시작점과 맺음점이 불분명한 얼룩들은 형상을 흐트러뜨린다. 무너지는 화면 안에서, 작가의 언어는 시나브로 형태를 발산한다.

현남은 일산의 고봉산 인근을 살피며 마주한 장면들을 소재 삼아 반입체 작업을 시도했다. 고봉산은 일산 북쪽에 위치한 야산으로, 일산(一山)이라는 지명의 유래가 될 만큼 유서 깊은 하나 지금은 철탑과 기지국, 군사

³ "돌아갈 곳도 없는데 누가 쉽게 나가겠어?" 시화방조제로 사라져가는 섬 '형도', (오마이뉴스 모바일, 2009년 4월 28일 보도)

시설, 고물상, 공동묘지 등을 우후죽순 끌어 안은 채 흔히 도시 외곽 싼 땅, 빈 땅에서 볼 법 한 특색 없는 풍경을 지니고 있다. 작가는 행정적 분할과는 별개로 일산 지역을 가로지르는 사회경제적 지리를 의식한다. 이는 1990년대에 활발히 전개된 신도시 개발 정책의 고르지 않은 적용에 따른 간극으로, 교통 및 상업 요지가 된 일산 남쪽과, 신도시의 응달처럼 기능하는 북쪽 고봉산 일대를 가르는 이질적 풍경을 낳았다. 작가의 시선을 끄는 이 풍경엔 사회의 작동 원리가 녹아들어 있는 셈이다. 작가는, 도시 뒷 편에서 주류의 규칙을 보란 듯 비껴 나가는 폐허의 활기를 발견한다. 중단된 공사 현장에서 버려졌을 법한 건축 폐기물이 인력과 바람에 떠밀린 끝에 제 집 찾은 듯 도로에 버젓이 자리 잡은 형태나, 경작 능력을 잃어 잡초 무성한 땅 위에 곳곳이 살아 남은 허수아비가 소외 당한 적 없는 것처럼, 자생력 있는 것처럼 공간을 점유한 광경에서 작가는 무질서의 활기를 채취한다. 가감없이 펼쳐진 '사회적' 장면들의 적나라한 생김새를 작업 안에 들이기 위해, 작가는 사진을 삽입한 반 평면의 부조를 이번 전시의 주 매체로 삼았다. 작가의 반입체는 그러나 장면의 구체적 형상을 지시하진 않는다. 지금껏 몰두해 왔듯, 재료로 사용하는 물질들 본연의 성질 및 시각적 성과물에 대한 탐구를 이어가면서, 자기 눈을 특히 사로 잡았던 장면의 세부 요소(그것이 풀이든, 화재 현장에서 타고 남아 방치된 건축 자재 표면의 텍스처였든, 공동묘지 비석의 도드라지는 질감이었든) 와 물질들 간에 발생하는 긴밀한 시각적 조응을 응시한다.